

# 광주시립미술관

## 가 보고 싶은 공립미술관 1위 만든다



광주시립미술관이 '가 보고 싶은 공립 미술관 1위'를 목표로 '5개년 혁신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광주 중외공원에 자리한 광주시립미술관 전경.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지난 1992년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서울 다음으로 문을 연 공립미술관이다. 광주 중외공원에 자리한 미술관 본관을 비롯해 하정웅미술관, 광주 시립사조미술관, 금남로본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G&J광주전남갤러리, 청년예술지원센터, 중국 북경장작센터 등을 통해 지역 작가를 후원하고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미술관 5개년(2019~2023) 혁신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미술관에 입성한 전승보 관장은 취임 초기부터 미술관 발전을 위한 장기 개혁안 구상을 염두에 두고 미술관 직원들과 협의하고 지역 문화계와 소통하며 개혁안을 준비해왔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전 관장은 '도시감성을 풍요롭게, 상상력이 넘치는 미술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대중성, 창의성, 다양성을 기반으로 미술관 정체성을 정립해 '가 보고 싶은 공립미술관 1위'를 목표로 삼았다.

이번 발전 방안은 ▲국제적 수준의 전시기획 시스템 정립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방식 다양화 ▲경험하고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구축 ▲소장품 분야별 특성화에 맞춘 작품 수집·관리 ▲하정웅미술관 활성화 등 5개 중점과제와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 '5개년 혁신 발전방안' 발표

5·18 40주년 기념전·'리암길릭'전 중외공원 일대 '애플 예술정원' 조성 '실버미술학교' 카페레스토랑 증축

미술관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전시 기획 분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별이 된 사람들'전이 눈길을 끈다. 국내외 작가 15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집단지성과 희생정신'을 상징하는 '송고미'를 중심으로 관람객의 감동을 유도하고, '본노와 슬픔에서 희망의 시작'이 되는 5·18의 확장과 세계화를 도모한다.

또 같은 해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개최를 기념하는 대규모 전시로 세계적인 개념미술가인 '리암 길릭'전을 비롯해 시민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수요자 중심의 전시회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등 가족단위 관람객을 타겟으로 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노년층으로 접어드는 베이비부머세대(1955-

1965)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실버미술학교'를 개설,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복지 활동과 풍요로운 여가생활 지원 등 교육 문화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미술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작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현재 교류 중인 중국, 독일, 대만 이외에 미국과 싱가포르 교류도 타진하는 등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지원 작가 인원도 확대한다. 또 홈페이지를 비롯한 블로그, 트위터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미술관 관람객의 재 방문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전방안의 또 다른 축은 미술관과 미술관이 위치한 중외공원에서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이다.

우선 방문객 편의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는 현재 본관 1층에 위치한 자료실을 2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라이브러리 아트라운지'를 조성한다. 호텔 라운지처럼 방문객들이 편히 쉬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카페테리아는 2022년까지 현재 카페를 3층으로 증축, 카페 레스토랑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한눈에 중외공원을 볼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을 살리고, 최근 실시한 미술관 관련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한 데 따른 방안이다.

중외공원 일대에는 국비를 투입해 2023년까지 아시아 문명·문화를 테마로 하는 문화정원, 자연체험 미로정원, 문화예술회관과 중외공원을 잇는 공중보행로인 하늘다리 개설 등 '아시아 예술정원'을 조성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립미술관은 2020년 사업 예산으로 국비 27억원을 확보하고, 자연과 예술이 함께 하는 체험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하정웅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하정웅미술관에 수장고를 신축해 문화 예술의 협업기능과 연구 교류의 아트플랫폼 역할을 하는 '아시아 아카이빙 플랫폼'을 건립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상그릴라, 무욕의 땅

김해성 작가 초대전, 19~30일 광주신세계갤러리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색들의 향연이다. 온갖 꽃, 새, 동물과 함께 동화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이국적인 소년 소녀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서양화가 김해성 작가는 자유로운 여행자다. 그가 찾은 곳은 대부분 오지였다. 설산과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중국의 중톈과 아토탄, 네팔 북부, 라다크를 걸었다.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그곳에서 만난 인물들과 이야기를 화사한 색감으로 표현하는 김해성 작가의 초대전이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지역미술 활성화를 위한 광주지역 중견작가 초대전으로 준비한 이번 전시의 주제는 '상그릴라, 무욕의 땅-길을 걷다 즐기는 별'.

상그릴라라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상향이라 여기는 지상 낙원이자 마음 속의 고향이다. 김 작가는 오지에서 만난 이들이 얼굴에서, 그곳의 풍광 속에서 상그릴라를 봤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행지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을 그린 20여점의 회화 작품과 현장의 생생함이 느껴지는 스케치 작품을 만난다. 작가는 "세상에서 벗어나 문명과 거리를 둔 여행길에서 만난 그것들은 별이었다"고 말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도의 라다크, 미얀마와 캄보디아, 몽골 등은 그가 동료 작가들과 미술교육, 벽

화작업, 문화행사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온 공간이자 그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깨우쳐준 고마운 장소이기도 했다.

그가 만난 티베트인들이나 오지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지만 전진난만하고 언제나 웃는 모습이다. 꾸밈없이 순수하고 평화롭다. 서로 나누고 돕는 아름다운 삶, 자연에 동화된 순수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상그릴라의 모습을 본 작가는 에메랄드 빛 호수와 눈부시게 푸른 하늘, 휴산과 바위 언덕 사이에 상상하게 빛나며 흔들리는 초록 이파리들, 마음을 들뜨게 하는 꽃향기, 불경을 외는 동자승 등을 화폭에 그려 넣었다.

김 작가 특유의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작품들도 좋지만 수채화물감으로, 먹물로 편안하게 그려낸 소박한 스케치 작품들에 오래도록 눈길이 간다. 수묵으로 그려낸 순박한 라다크의 여인이거나, 동승을 안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오빠의 모습 등은 온기를 전한다.

조선대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 작가는 지금까지 22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센터전시 프로그램에 1기로 참여했다. 현재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및 '선과 색' 회화로 활동 중이다. 전시 오픈 19일 오후 6시30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히말라야의 아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5일부터 문화예술 진로프로그램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은 창작자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2019 ACC TEEN 수요문화예술체험'은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과 함께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공동체의 날'과 연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개성과 장점을 살린 1인 온라인 방송 채널을

기획·운영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직접 영상을 기획, 편집, 제작할 수 있다.

'전시 테크니션'은 예술가의 미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문 분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미디어 영상, 음향 등을 활용해 창작형 실습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이며 참가 희망자는 문화전당 홈페이지 또는 꿈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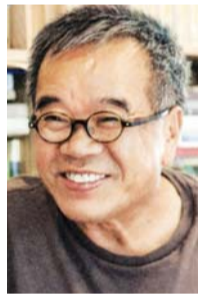
### 하정웅미술관 인문학강좌, 19일 김용택 시인 초청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2019년도 하정웅미술관 인문학강좌로 김용택(시인) 시인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다.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이번 강좌의 주제는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삶이 공부였고, 배우면 써먹었고, 평생 공부하고, 자연이 말하고 자연이 시키는 일을 따라하고, 삶이 예술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김 시인은

이번 강좌에서 인공 지능의 시대에 자연 속에서 순응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이 무엇이 있었는지 들려줄 예정이다.

김 시인은 '섬진강', '맑은 날', '그대, 거침없는 사랑' 등을 펴냈고 김수영문학상과 소월시문학상을 받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